음악은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홍 승 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청소년들이 음악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방학에만 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 연중 내내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저 음악만을 들려주는 공연보다는 적절한 설명이나 해설로 이해를 돕는" 렉처 콘서트 "라야 할 것이다.

여름 한철 우리 음악계는 두 가지 일에 매달려 온통 난리법석을 떤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관객으로 끌어들이는 음악회를 만드는 것이 그 한가지이고 역시 방학을 맞은 음악학도들을 위해 음악캠프를 여는 것이 그 나머지이다. 이처럼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남들 휴가 떠나는 계절에 수고하고 땀흘리려는 생각은 가상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리 아름다워보이지 않는다.

연중내내 청소년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마련되어야…

음악회들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 내용이 다른 음악회들에 비해 뛰어나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소위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다. 단지 각급 학교에서 공연관람을 숙제로 내고 있는 데다가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이 자녀들의 바람직한 여가생활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가까이 접하게 하고 또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뿐만 아니라 음악이, 그리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숙제를 내서라도 음악회에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음악인들 또한 이런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음악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답시고 무대에 올리고 있는 각종 음악회들은 조잡하고 얄팍하기 그지없다. 미래의 관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수익과 관객동원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다. 숙제라서 어쩔 수 없이 음악회를 찾아야 하는 어린 청중들을 끌어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들이 다음에도 또 음악

회를 찾도록 만드는 일에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필 방학에만 이렇게 난리들일 수가 없고 그 내용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다. 청소년들이 음악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방학에만 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 연중 내내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저 음악만을 들려주는 공연보다는 적절한 설명이나 해설로 이해를 돕는" 렉처 콘서트 "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곡목 선정에서부터 전체 레퍼토리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외없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런 졸속 공연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결국 음악회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첫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숙제 때문에 음악회를 찾는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것이 처음 경험하는 음악회일 가능성이 높고, 그 첫 경험에서 좋은 느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후로는 다시 음악회를 찾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음악회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을 불러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숙제가 아니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제 발로 걸어서 음악회를 찾을 리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숙제로만 해결하려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안일함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각급 학교의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라면 최소한 안내자의 역할은 해야 할 것이다. 그저 어떤 음악회든 갔다만 오라는 식이 아니라 주요 공연장이나 공연 단체의 공연일정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 권장할 만한 공연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역할만큼은 해줘야 할 것이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소신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듯 싶다. 하나가 아닌 복수의 공연을 추천하면서 그것을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부정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진정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면 추천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직접 인솔을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인솔하는 음악회라면 사전에 학생들에게 그 음악회에 대한 정보와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교사들중 누군가가 이것이야말로 특정 음악회를 선정해서 강요하는 일이 아니냐는 항변을 한다면 우리의 스승들을 이렇게까지 소심하게 만든 교육행정 당국의 처사와 작금의 세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음악회 몇 개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을 오라 가라 하는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마련하고, 음악교사들과 협력하여 학교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기야 우리 나라를 대표한다는 공연장이나 공연단체에 청소년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하나 변변하게 없는 현실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연장 방문프로그램 만든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예술의전당쯤 되는 공연장이라면 미리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을 정해 공연장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사실 이런 정도는 노력이랄 것도 없다. 직

원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미리 약속된 장소로 나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공연장 이곳 저곳을 보여주고 약간의 설명만 곁들이면 그만인 것이다. 장담하건대 이 정도만으로도 공연장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주변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공연장 방문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면 어설픈 음악회를 만드는 것보다 몇 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미래관객에 대한 노력이 이렇게 두서없는 것처럼 미래 음악가들을 양성한다는 음악캠프들 역시 중구난방인 것은 마찬가지다. 방학이 가까워 오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 음악캠프를 알리는 광고가 쏟아지고 포스터와 전단도 여기 저기 나붙어 있지만 그 많은 캠프들 가운데 어느 것도 별로 시선을 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악캠프들은 한결같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연주자나 교수들을 초빙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물론 음악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의 체계보다는 가르치는 선생의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래가지고는 평소에 이루어지는 개인교습과 음악캠프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음악캠프는 여럿이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데 매력이 있다. 서로 다른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앙상블의 묘미를 터득하기도 하고 같은 악기라 하더라도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초빙되기에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 연습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경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음악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인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예술의전당쯤 되는 공연장이라면 미리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을 정해 공연장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사실 이런 정도는 노력이랄 것도 없다. 직원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미리 약속된 장소로 나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공연장 이곳 저곳을 보여주고 약간의 설명만 곁들이면 그만인 것이다.

미래의 관객과 미래의 음악가를 한자리에

그런데 유명하다는 캠프마다 참가하는 교수진이 비슷비슷하다. 들리는 말로는 유명세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데려올 수 있는 학생들의 수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캠프라는 것이 평소의 교습장소를 옮겨 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도 좋은 점이라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교습의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연습의 양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

이 있다 해도 캠프를 오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 특별히 할 말도 없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레퍼토리를 완성하여 작은 음악회를 가진다는 것 또한 캠프의 매력인데 캠프에 참가한 경쟁자들 말고는 진정한 관객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미래의 관객과 미래의 음악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음악캠프가 어차피 휴양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같은 기간 동안 피서객들도 함께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들을 유치하여 저녁마다 캠프 참가자들이 마련하는 음악회도 보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한다면 아마도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낮 시간에 별도의 교양 강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같은 또래의 악기 전공자와 일반 참가자가 같은 방을 쓰도록 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휴양지가 아닌 첩첩산중 시골 초등학교 분교에서 이런 캠프를 여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다. 음악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것을 애써 들으려는 사람, 거기에 평소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인다면 적어도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곳이 혹시 초등학교 분교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수용시설이라면 어떨까? 아마 그곳에서는 음악 말고도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소외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위로하고 위로 받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싶다.

문예진흥원, 해외 문화예술계 동향 · 정보 온라인 서비스 개시

문예진흥원은 2001년 4월 2일부터 해외 문화예술계의 주요 뉴스를 요약 번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kcaf.or.kr)를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이 「해외문예소식(World Arts News)」 게시판에서는 NYT, BBC 등 세계 유수 매체들의 문화예술 관련 최근 소식들을 원문과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이 게시판은 〔예술계 이슈, 문학 · 출판 · 음악 · 시각예술 · 미디어 · 연극〕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검색하기 편리하며, 격주간으로 새롭게 꾸며지고 있다. 현재까지 ‘부시 행정부 하의 NEA 와’ ‘영국, 예술발전 10개년 계획 발표’, ‘베를린 인체전시 논란’ 등 예술계 이슈와 주요 문화예술 정보가 소개되었으며, 현재는 구미(歐美) 중심이지만 점차 아시아, 중남미 등까지 포괄하여 전 세계 예술계의 최신 동향과 주요 문화정책 정보 등을 중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문예진흥원은 문예진흥기금의 재정적 지원 행정에 머물지 않고 국민과 예술인들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 주요 정보의 제공과 교류 등 비재정적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 국제교류팀 / Tel: 02-760-4574 Fax: 02-760-4754)